

선우휘 소설에 나타난 연대의 성격

서 세 립*

요 약

작가 선우휘의 소설은 일반적으로 '반공주의'나 '행동적 휴머니즘' 등으로 분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1950년대 이후 한국 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통용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반공주의와 작가 선우휘의 작품 세계에 대한 강력한 등가성 이상의 것이 다양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

선우휘는 1957년 『불꽃』을 『문학예술』에 발표하고 이 작품으로 제2회 동인문학상까지 수상하며 전후 문단의 인기 작가로 단숨에 발돋움했다. 이후 1950년대 문단의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 선우휘는 전후 문학사의 중요한 일원으로 꼽힌다. 따라서 그의 정신사적 지향점을 다양하게 고찰하는 것은 한국의 전후 문단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사이를 오갔던 선우휘의 의식 기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특히 '연대'(solidarity)의 개념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선우휘의 작품들은 분단사회의 특수성과 월남작가로서의 고통을 함께 드러내면서, 독특한 연대 인식들을 표출한다. 이에 따라 월남민으로서의 자각이 당시 남한 사회에서 어떠한 독특한 연대 인식을 형상화하였는가를 파악하고 구체적 유형을 분석하였다.

우선 강렬한 가족주의를 통한 감정적 연대의 추구하고 이데올로기적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가족애와 반공주의의 관계에 대해 작가 선우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려움을 드러낸다. 이와 함께 선우휘가 평생 강조했던 지역주의, 즉 서북 지역 출신 평안도 사람으로서의 자각과 관련한 연대 의식이

* 광운대학교 강사

그의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였다. 반공주의 못지않게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작가 선우휘에게 강력한 것이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낯한 사회에서의 삶의 결과가 드러낸 간극을 작가가 인식하는 태도이다. 그것은 자본을 매개로 하여 지역주의 연대의 균열 지점을 서글프게 쫓아가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본고에서는 선우휘의 작품에 나타난 연대의 성격과 작가의식의 연관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다른 전후 작가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른 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공주의 및 휴머니즘을 둘러싸고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온 선우휘에 대해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분석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선우휘, 연대, 반공, 가족주의, 지역주의, 감정적 연대, 자본, 균열

목차

1. 서론
2. 가족주의와 감정적 연대의 (불)가능성
3. 지역주의의 균열과 자본의 투입 과정
4. 재현 불가능한 과거와 비극적 연대 인식
5. 결론

1. 서론

‘행동적 휴머니즘’이나 ‘반공주의’ 등의 용어는 소설가 선우휘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선우휘의 작가 의식과 이들 용어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럼에도 행동주의자이자 반공주의자로서의 선우휘의 면모는 매우 강렬히 각인된 것이었고, 1950년대 이후의 한국 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진

모습이기도 했다.

한 작가의 면모를 대표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작가 개인에게 영광스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적어도 선우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모로 다시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반공주의와 작가 선우회의 작품 세계에 대한 강력한 등가성이 너무나 커다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방향으로든 선우회의 소설 작품 자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되기 어려운 것은, 한국의 전후 문학사를 다채롭게 이해하는 데에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1957년 『불꽃』을 『문학예술』에 발표하고 이 작품으로 제2회 동인문학상까지 수상하며 전후 문단의 인기 작가로 단숨에 발돋움한 후 1950년대 문단의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게 된 작가 선우회는 전후 문학사의 중요한 일원으로 손꼽힌다. 따라서 선우회 소설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병행될 때 전후 문학사 이해의 평면성을 넘어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논자에 따라 선우회의 작가의식의 기원에서 소극적 개인주의와 본능적 체념을 발견하기도 하고,¹⁾ 정반대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거부감을 지닌 공동체주의를 지적하기도 한다.²⁾ 그러나 궁극적으로 역사의식의 부재와 강렬한 반공주의가 선우회 소설의 본질이라는 시각은 공통적인 결론으로 도출된다. 선우회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불꽃』 등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결국 평화로운 삶을 짓밟은 전쟁과 그러한 전쟁을 일으킨 근본악으로서의 공산당에 대한 분노이며 그러한 원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는 것이다. 이때 선우회의 인물들은 광기어린 집단인 공산당과 맞서는 숭고한 개인으로서 그려지며 그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은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상통

1) 염무웅, 『선우회론』, 『창작과비평』, 1967. 겨울. 649면.

2) 이정석, 『선우회의 세계관과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 4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232면.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³⁾

이러한 반공주의와의 친연성과 그 연원에 대하여, 그의 작품에 나타난 가족주의를 파시즘적 가치에서 분석하거나⁴⁾ 자전적 면모의 종합 및 서북 지역의 영향 등으로 인한 정치적 입장 견지⁵⁾ 등으로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실향과 민족 대립의 현실 속에서 자기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작가가⁶⁾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현실을 타개해 나가려고 했는가는 선우회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과 월남의 과정에서 선우회가 반공주의 신념을 형성하는 데에 ‘민족’의 개념은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⁷⁾ 선우회 특유의 강력한 지역주의에 대한 관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반공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던 작가가 서북청년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의 극단적 태도나 활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것도 역설적으로 지역주의라는 비합리적 거멸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의미가 있다.⁸⁾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작가 선우회의 정신사적 지향점을 다양하게 고찰해 볼 수 있을 때, 한국의 전후 문단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에서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사이를 오갔던 선우회의 의식 기반에 대하여 집

3) 강진호, 『한국 반공주의의 소설·사회학적 기능』,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학회, 2004, 7-10면.

4) 김진기,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파시즘 연구-선우회 소설에 나타난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306-307면.

5) 한수영, 『한국의 보수주의자 선우회』, 『역사비평』, 2001. 겨울. 64-82면.

6) 김종욱, 『선우회 초기소설에 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317-319면.

7) 정주아, 『두 개의 국경과 이동의 딜레마-선우회를 통해 본 월남작가의 반공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학회, 2012, 260-261면.

8) 김건우, 『월남 학병세대의 해방 후 8년-학병세대 연구를 위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학회, 2015, 308-309면. 김건우는 후일 선우회가 함석헌, 지명관 등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애썼다는 점을 들며, 이 역시 강력한 지역주의의 자장 안에 놓인 일임을 지적한다.

중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들은 기본적으로 선우휘가 드러낸 개인주의나 집단주의를 왜곡된 인간관계와 세계관 형성의 결과물로 보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왜곡이나 부재만으로 분명히 단정 짓기 어려운 지점을 선우휘의 작품 속에서 빈번히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특히 ‘연대’(solidarity)의 개념과 관련하여 분석할 것이다. 선우휘의 작품에서는 지속적으로 연대를 통한 세계 이해가 드러나는 지점이 있다. 여기에는 세계 및 타자에 대한 지배욕구나 왜곡된 심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본고에서는 그러한 지점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연대는 동등하고 공통적인 생활 상태를 공유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회적 적대자’에 맞서 서로에 대해 책임지는 공동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⁹⁾ 그런데 이때 연대의 개념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현대에서는 연대의 개념이 적대자에 대한 공동의 대처라는 입장을 넘어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유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옮겨간다. 즉 기본적으로 연대 개념은 보편적 가치로서의 연대뿐만 아니라 상황적 요청으로서의 연대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연대가 어떻게 발생하고 기능하는가에 관해 분석, 정리하는 것은 사실 간단하지 않다. 시대, 지역, 이념 등으로 그것의 그물망을 조직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데, 선우휘의 작품들은 어찌서 그것이 어려운가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전쟁을 전후한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대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독

9) 라이너 출, 최성환 역,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한울, 2008, 28면.

10) 최성환, 『철학적 문제로서의 연대』, 『철학탐구』 27,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0, 144-145면.

특한 지점이 있다. 여기에는 월남작가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월남민으로서의 자각을 기반으로 당대 남한 사회에서 삶을 이끌어가는 선우휘 작품의 인물들이 어떠한 독특한 연대 인식을 형상화하였는가를 파악하여 그 구체적 양상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우선 강렬한 가족주의를 통한 감정적 연대의 추구하고 이데올로기적 관련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선우휘가 일평생 강조했던 지역주의, 즉 서북 지역 출신의, 평안도 사람으로서의 자각과 관련한 연대 의식이 그의 삶과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지점이다. 반공주의 못지않게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작가 선우휘에게 강력한 것이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남한 사회에서의 삶의 결과가 드러낸 간극을 작가가 인식하는 태도이다. 그것은 자본을 매개로 하여 지역주의 연대의 균열 지점을 서글프게 쫓아가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본고에서는 선우휘의 작품에 나타난 연대의 성격과 작가의식의 연관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다른 전후 작가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른 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공주의 및 휴머니즘을 둘러싸고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온 선우휘에 대해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분석의 가능성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족주의와 감정적 연대의 (불)가능성

선우휘가 1958년 『사상계』에 발표한 작품 『報復』은 전쟁, 반공과 가족주의가 결합한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준다. 작품에서는 소대장인 ‘나’와 소대원인 ‘맹(孟)’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맹은 소대

장인 ‘나’가 아군의 입장에서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폭력성을 노출하며 적(敵), 즉 공산군들을 무자비하게 죽인다. 그에게는 공산당원들에게 아버지와 형을 억울하게 잃어야 했던 과거가 있으며, 무차별적으로 적을 죽이는 것이 바로 그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 그러나 소대를 이탈해 홀로 보복을 위해 북진하고 있던 맹은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이북 출신 병사가, 이남으로 간 형을 생각해 아무도 쓰지 않았다는 말을 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크게 동요하게 된다. 결국 이북 고향 마을로 보복의 대상을 찾아갔다가, 그의 어린 자식과 처를 보고 직접 죽이지 못하고 돌아서던 맹은 공산군과의 교전 끝에 죽고 만다.

이 작품의 화자인 ‘나’는 맹의 그러한 잔인한 행위와 자신의 상황을 계속하여 비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와 나와는 꼭 같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맹과 자신이 엄연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와의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갯(간격)이 있었다. 마땅히 있어야 했다. 있다고 생각해야 했다. 내가 그와 같다고 생각하기는 싫었”¹¹⁾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자체는 동일하지만 맹과 자신 사이에는 ‘갯’이 있다는 나의 생각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맹의 질문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고 만다.

“왜, 사람은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합니까.”

“글쎄 죽이니까 죽이고 그러니까 또 죽이고 죽이는 거겠지.”

하고 난 내자신도 무슨 말인지 분명치 않은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다.

“그건 누구의 탓입니까.”

“글쎄.”¹²⁾

11) 선우휘, 『報復』, 『사상계』, 1958.7. 378면.

12) 위의 글, 380면.

사람이 사람끼리, 나아가 같은 민족끼리 왜 서로 죽이고 죽여야 하는가를 맹이 질문해 올 때, 사실 나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 결국 스스로의 운명에 대하여 외면해오던 현실 및 인간으로서의 유대에 대한 관념을 다시금 직시하게 된다. 맹을 한없이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던 나였지만,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유대 따위는 아랑곳없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온 것은 맹이나 나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나는 전신에 오싹 오한을 느끼고 나 자신이 갑자기 무서웠다. 미움없이 사람을 죽이고 냉냉한 머리로 전투를 처리한 지나간 나날.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 나 아우슈비츠의 동지.¹³⁾

선우휘의 반공주의를 이해할 때 그가 공산주의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는 지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족 간의 배반이라는 상황이, 그것도 살인이라는 반윤리적인 정황과 겹쳐 놓여 있다고 분석된다.¹⁴⁾ 이 작품에서는 것처럼 살인 등의 폭력과 반윤리적 상황을 목도하게 된 인물들이 그것을 반공주의로 체화하는 지점과 함께, 그것이 위의 인용과 같이 인간의 유대에 대한 본질적 고민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작품은 가족주의에 의한 보복 심리가 반공주의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가족주의는 파시즘적 사고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강력히 비판되기도 한다. 가족의 안온함이라는 환상이 국가 전체로 이어지면서 확대된 가족 환상에 의한 가족과 국가의 이중구속을 유발한다는 것이다.¹⁵⁾ 또한 가족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관

13) 위의 글, 387면.

14) 정주아, 앞의 글, 261면.

15) 이득재,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2001, 194-197면.

습적 불평등을 내부적으로 심화시켰다고 주장되기도 한다.¹⁶⁾ 가족주의의 폐쇄성이 왜곡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가족을 통해 얻힌 증오와 보복의 심리가 결국 반공주의로 전화한다는 결론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다소 의문이 들게 된다. 궁극적으로 맹의 보복은 '실패'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직접적 보복이 실패한 것은 누구도 아닌 맹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가족주의나 가족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힘에 의존한다면, 결국 그 어떤 것도 무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감정적인 연대 의식에 호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어떠한 논리적·체제적 인식 기반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상실감에 의거한 슬픔과 감정의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견 이 작품의 맹이 보여주는 공격적이고 잔인한 태도에서 선우휘의 가족주의가 드러내는 파시즘적 사고의 단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맹 스스로 보복을 포기하는 행위를 통해 가족주의의 연대는 그 감정적 속성으로 인해 오히려 끊임없이 균열의 지점을 노출한다는 점이라 하겠다. 내 가족의 상실감에 보복의 대상인 그의 가족의 상실감이 겹쳐질 때, 혹은 이남 병사를 쏘지 못하는 인민군 병사의 감정이 겹쳐질 때, 그것은 맹이라는 인간에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동시에 세계를 자신의 분명한 이분법적 기준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러한 가족애의 연대 의식이야말로 맹이 가진 반공주의 이념의 가장 철저한 기반이었으나, 그 연대 의식이 계속해서 주체를 달리하며 각각의 결을 드러낼 때마다 맹은 흔들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짧은 작품이지만 이 작품에서는 가족애와 반공주의의 관계에 대해 작가 선우휘가 그만의 방식으로 고민을 드

16) 다이애너 기틴스, 안호용·김홍주·배선희 역, 『가족은 없다-가족이데올로기의 해부』, 일신사, 1998, 244-245면.

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족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는 과연 직선적 연결 고리를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1962년에 발표한 『賭博』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가족주의와 국가 운명의 줄다리기를 시험하고 있다. 나의 부친은 어려서부터 도박을 좋아하는 기질이 있던 나를 언제나 강하게 꾸짖어 왔으나, 해방이 되고 토지개혁이 진행되는 시대의 격동 속에서 오히려 본인이 가족의 삶과 운명을 커다란 도박에 걸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인물로 등장한다. “칠십평생 먹을 것도 안 먹고 잠조차 주려서 뼈가 부러져라구 두더지처럼 땅을 파서 겨우 요만큼 벌어 놓았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¹⁷⁾는 삶이 부친의 의식을 크게 흔들 어놓았던 것이다. 그에 따라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친 스스로가 일생 일대의 도박을 시작한다. 바로, 세 아들 중 이남에 둘, 이북에 하나를 두고 각 체제에서의 운명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분명히 부친은 도박을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둘째동생과 함께 화투를 즐기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었다.

이남과 이북에 삼형제를 나누워 놓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자식은 이남에, 한 자식은 이북에 두고 말이다.

(중략)

“무지 어느 쪽이 견디어내고 어느 쪽이 기울어질 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중략)

부친은 지금 주사위가 아니라 앞 뒤만 나오는 동전을 굴리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한 편에는 첫째아들과 둘째아들이 있고 한 편에는 셋째아들이 있는 동전이다. 어느 쪽이 나와도 아예 홀랑 밑천을 터는 위험한 도박은 아니다. 적어도 삼촌아저

17) 선우휘, 『賭博』, 『사상계』, 1962.11. 125면.

씨가 집을 걸고 한 그런 도박과는 다르다. 부친은 어느 쪽에 더 걸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나로서도 모를 일이다. 부친의 경우 이천불을 얻느냐 천불을 얻느냐 하는 금전의 한계 효용을 갖고 논할 수는 없는 도박일테니까.

그러나 감히 누가 부친이 하고 있는 도박을 가리켜 도덕, 윤리, 종교의 견지에서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

(중략)

그것이 던져지면 어느 쪽이 나올까? 어느 쪽이 나와도 부친에게 있어서 잃은 가치와 딴 가치는 같고 따라서 그 슬픔은 동일할 것이다.¹⁸⁾

이 작품은 연대도, 분리도 불가능한 지점에서 극단적으로 아예 운명을 운에 맡겨 버리는 행위를 그려낸다. 남북분단의 현실 앞에서 부친은 그것을 도박에 비유하여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부친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는 그러한 도박이 결코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도박이라는 점에서 숙명적 고통을 안고 있는 분단 조국의 또 다른 삶의 방식 중 하나라는 역사의식을 드러낸다. 연대와 분리의 사이에서 부친이 택한 우연적 선택의 연속이 결국 가족이라는 연대만으로 분단 현실의 이념적 고통을 대체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공감, 즉 감정적 요인을 통하여 개인이 공동체에 대한 부채와 감사, 죄책감 등을 갖게 될 때, 개인은 공동체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게 되지만, 연대를 공감이라는 감정에만 근거하여 이해하는 것은, 윤리의 차원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설사 타인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적일 뿐이라는 것이다.¹⁹⁾ 따라서 가족주의의 연대 의식이 작중 인물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

18) 위의 글, 126-128면.

19) 이승훈, 『현대 사회에서 연대적 주체의 모색』, 『사회사상과 문화』 18권 2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219면.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볼 때에도, 그 감정적 구조의 불분명한 성격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제적인 것은 선우휘 소설 속의 인물들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운명을 승패나 우열에 대한 집착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양상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이다. 1958년에 발표한 『勝敗』와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나’와 ‘서구’로 대표되는 두 친구의 전 생애에 걸친 끊임없는 대결 의식은 결국은 내 ‘편’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도 읽힐 수 있다. 끝내 두 사람 다 그것에 실패하고 마는 것은 민족 연대의 분리 과정과 상당 부분 겹쳐진다.

따라서 선우휘의 소설에서 강조되는 것은 정치적 연대나 투쟁이 아니라 교양의 윤리나 인간적 교감을 통한 공동체성이라는²⁰⁾ 한 가지 결론만으로 봉합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 존재한다. 반공 이데올로기의 강력한 자장이 물론 그의 작품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단지 세계에 대한 수동적, 파편적 이해로만 나아갔다는 해석만으로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 그리고 그 여백에는 분단 조국의 역사와 현실을 거치며 연대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형성, 분열되어 가는 과정이 놓여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연대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오고 있다. 정치부터 사회, 경제, 일상생활 체계에 이르기까지 연대는 다양한 수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 연대는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라이너 출은 포괄적인 것이 아니면 진정한 연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²¹⁾ 분리하기 위한 연대, 동질성의 이름 앞에서 타자들을 배척하기 위한 연대는 진정성을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가족이라는 강력한 감정적 연결고리는 오히려 그러한 강력한 감정적 요소들로 인해 정상적 현실 인식을 유

20) 이정석, 앞의 글, 228쪽.

21) 라이너 출, 앞의 책, 15면.

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급기야 인생을 도박처럼 인식해나가는 이 인물들이 내포하는 것은 결국, 감정적 연대의 강력한 자장은 정상적 판단력을 소거해나가는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이라 할 수 있다.

3. 지역주의의 균열과 자본의 투입 과정

앞서 언급하였듯이, 선우휘 특유의 지역주의는 일평생 그의 삶과 작품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주의는 단순한 온정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정치성'을 내포한 것이었다는²²⁾ 점이 중요하다. 선우휘의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이러한 정치성은 작품을 추동하는 기본적인 힘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그의 연대 인식의 변화 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작가의 초기작이자 대표작 중 하나인 『테러리스트』에는 선우휘 특유의 지역주의적 강조가 작품 전반에 강렬히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도 걸(傑), 길주(吉周), 학구(學求), 성기 형님 등 이북 출신의 월남민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월남한 청년들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이남에서 마땅한 직업도 자리도 없이 방황하는 중이다. 걸은 성기 형님을 따라 빨갱이 소탕에 청춘을 바치고 월남해 왔지만, 이제는 딱히 따를 사람도 이념도 없다. 길주는 전에 자신들을 배신한 김가의 하수인 행세를 하며 멀어진다. 그러다 걸이 정치 연설 도중 김가의 하수인들과 싸움이 붙어 그날 밤 습격을 당하지만, 결정적 순간 길주는 걸을 구한다.

셋은 평북(平北) 시골서 공산당본부를 습격하고 그 길로 이

22) 김건우, 앞의 글, 309면.

남으로 뛰어나와 줄곳 성기형님을 따라다니며 수십 차나 경향 각지에서 공산당과 싸웠다.

걸의 바른 손등에는 당시 칼로 찢리운 자국이 아직도 정그럽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평생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걸은 길주나 학구처럼 성기형님을 닮을 수 없었다. 물론 그를 믿고 따라다니던 친구들은 현재 보잘것없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것이 성기형님 닮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분명히 알지는 못해도 성기형님이 하는 일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 여태까지 다라다닌 것은 사실이다. 물론 잘됐다는 놈들이 번드르르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무엇인지 석연치 못한 것을 느끼기는 했다.

그러나 걸은 아직까지 이처럼 덜떨어진 자기의 꼴을 두고 누구를 원망해 본 일이 없었다. 가끔 창피를 느낄 때는 있었으나 그럴 때도 걸은 그것이 오직 공산당 놈들의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 자신의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좋지 못한 일의 근원은 「빨갱이」 공산당 놈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다. 그 위에 걸은 그의 머리로서 그밖의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몰랐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공산당이 없어진 지금에 와서 누구를 보고 주먹을 내들러야 할는지, 그 주먹의 대상을 잃어버린 일이었다.²³⁾

위의 묘사는 바로 1950년대, 남한 사회에 월남해 온 청년상에 대한 선우휘의 전형적인 시각을 드러내준다. 특히 작가 선우휘가 그려내는 이들 월남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기반하고 있는 어떠한 연대의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서북'이라는 지역에 대한 기억과 경험의 공유에 의거한 것이다.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 지역 출신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⁴⁾ 특히 선우휘의 경우,

23) 선우휘, 『테러리스트』, 『사상계』, 1956.12. 337-338면.

24) 김건우, 『서북 지역주의와 도산 안창호』,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책방, 2017, 38-40면.

그의 주위 사람들에 의하면 ‘감정’을 무척 중요시하고 ‘지역주의’적인 사람으로 회고되며, 그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고향 평안도쪽 사람들이라면 끝까지 돕고 보호하고자 했다고 알려져 있다.²⁵⁾ 이러한 전기적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반공주의 못지않게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작가 선우휘에게 강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로 인한 남한 사회에서의 삶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작가적 인식이라고 하겠다.

선우휘의 작품 내 이들 청년들은 한때 서청 활동으로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찾기도 하였으나, 남한 사회에서 더 이상 ‘빨갱이’들을 대놓고 공격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존재 의미도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멀 해야 될디 모르겠”는 그들은 우왕좌왕 서울 거리를 헤매며 한때 자신들을 이끌었던 성기 형님에게 실망과 기대를 동시에 품고 있다. 선우휘는 이를 “시대의 상황이 불가피하게 요구했던 필요악의 에너지가 지금 타성을 벗어나려고 꿈틀거리는 몸부림을 느끼는 것”²⁶⁾이라고 설명한다. 한수영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서청의 불법적 폭력에 대해 개인의 ‘린치’ 차원에서 비판하는 데 그치고, 그보다 본질적인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점, 폭력 행위 자체를 시대적 요인에 의한 ‘정당방위’ 정도로 이해하며 상당부분 미학적 승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²⁷⁾ 이러한 시각은 폭력성을 드러낸다. 선우휘 초기 소설에서 지역주의는 이렇듯 상당 부분 폭력적 현실 인식과 관련성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걸이나 길주, 학구 등의 이 청년들이 이후 남한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들어가 적응하

25) 김건우, 『선우휘, 반공 국가주의와 지역주의 사이에서』, 위의 책, 97면.

26) 선우휘, 앞의 글, 349면.

27) 한수영, 앞의 글, 81-82면.

고 살아나가는가를 그려내는 방식이다. 걸, 길주, 학구 등이 ‘지금’의 현실에서 고통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명분’을 상실한 점이다. 빨갱이를 치는 것, 공산당을 때려 부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명분이자 유일한 삶의 목적이나 마찬가지로였던 이들에게, 더 이상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다.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와 같았던 강력한 정치성이 지금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고통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들쭉네는 ‘자본’에 대한 감각과 연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 내려와 사실상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는 바로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 몹시 서투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자본’에 대한 관념과 인식은 이후 선우회가 그려내는 월남민들의 사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오리와階級章』(1958)과 『아아, 내 고장』(1964) 등의 작품들을 통해 이들이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 체제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감응하는 동안, 지역주의의 연대가 독특한 시각을 유발한다는 점도 발견된다.

『오리와階級章』에서 형상화되는 이북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설정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대비되면서 인물들 간의 미묘한 관계 변화에 주목하게 한다.

“그럼, 거기서야 누구나가 다 한가지지 생각하문 김 선생 팔자두 티겍계(더럽게) 기박한 거웨. 이북에 그대루 남아 있었음은 지금은 거뜬히 국당이다.”

“많이 달라졌겟읍니다.”

“그럼 아주 딴사람이다. 내가 하릴없이 친구들을 두루 찾아 댕기다가 거기 김 선생 계시능 걸 알구 찾아갔더니 반가워하 두만. 이북에서야 서루가 으르릉 댕디만, 만나구 보니까 반가 왔다. 김 선생은 그르케 돼서 나가떨어디구 난 나대루 쓸모가 없이 이르케 된 판이니, 비슷비슷한 신세 타령이 됐다. 김 선생

은 지금 한 가지 생각밖에 없대능 거야. 어드케 하문 촌에서 조용히 새끼들이나 길러 가면서 살겠능가 하는 연구뿐이다.”²⁸⁾

강성 공산당원이었던 김 선생이 남한에 와서 이북에서만큼 땡땡 거리며 살기는 어려울 것이었음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반면 김 선생의 제자였던 나는 육군에 입대에 대령의 지위에 올라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들의 사이에 연결고리와 같은 춘봉 형님은 그러한 현실적 입장차를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김 선생과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을 세심하게 고민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세심함’이 필요해진 이유는 바로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역주의에 기반한 연대 의식만으로는 온전히 다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관계로의 진입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에는 자본과 그에 기반한 새로운 계급 구조들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김 선생이 남한 사회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오리를 반드시 키워야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힘만으로 헤쳐 나가기 어려우며 이때 과거의 인연을 통해 맺어진 지역주의 공동체, 즉 김 선생과 나와 춘봉 형님의 관계는 그러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행동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 행동의 사이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지나간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간극은 결국 그것이 자본주의 도시의 감수성 속에서 이들이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연대 의식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사회적 장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적 요소는 현실 공간보다는 상징과 의미를 통한 이상세계의 구성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 인간이 타자와 의미교환 관계를 통하여 자아를 형성시키는 것과 같이 인간 간의 상호작용은 공유하는 상징세계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

28) 선우휘, 『오리와 階級章』, 『지성』, 1958.가을. 213-214면.

어진 상징세계는 개인 간의 사회관계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²⁹⁾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연대는 사실 매우 느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³⁰⁾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현대 사회의 유의미한 연대의 형태는 동일성에 근거한 연대가 아니라 차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연대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며, 이는 타자와의 만남과 상호교섭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연대 이념의 핵심은 타자에 대한 책임의 전개와 수용이라고 이야기된다.³¹⁾ 즉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는 '우리'로 지칭되는 존재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본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정체성의 이면에는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서북'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의 연대의 양상도 분단 디아스포라 이후 남한 생활이 점차 이어질수록 그 형상과 방향을 달리하며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서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대의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믿음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오리와 階級章」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연대 의식에 대한 관점이, 현실적 고난의 앞에서 공동체성의 상실을 염려하는 방향, 즉 서글프더라도 같이 노래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는 쪽이었던 데 반해, 1960년대에 접어들어 상실감의 강화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4년작 「아아, 내 고장」은 지역주의의 균열 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이 소설은 평안도 출신 동향인들의 군민회가 펼쳐지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재수, 석태, 차균, 창규, 갑수, 그리고 시인

29)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001, 55면.

30) 서유석, 「'연대' 개념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의미」, 『시대와 철학』 제21권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455면.

31) 이승훈, 앞의 글, 209-210면.

인 영호 등 평안도 출신 친구들이 모여 군민회를 펼치다 서로의 속사정과 월남 이후의 상황 및 현실에 대해 시인의 목소리를 빌려 생각해보게 된다. 시인이며 잡지사 기자인 영호의 눈에 비친 실항민들의 군민친선회는 고향의 산하를 생각하게 하고, 잃어버린 그들의 유년 시절을 반추하게 하며, 전쟁의 비극과 분단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현장이다.³²⁾ 그런데 이러한 군민친선회는 뜻밖에도 폭력 사건으로 마무리를 짓게 된다.

이 작품의 화자인 영호는 시인으로, 시종일관 감상적 태도를 유지한 채 군민친선회 행사에 참여한 동향 사람들, 즉 평안도 사람들을 관찰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누구보다 먼저 삼팔선을 넘어 이남으로 와서 한때 서북청년회에서 주먹을 휘두르다가 지금은 그럴사하게 된 고장선배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담배값이나 막걸리값을 얻어쓰고 있는”³³⁾ ‘재수’는 작중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다. 서북청년회에서 주먹을 휘둘렀던 과거는 이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자신들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시절의 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사회는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남한 사회의 초라한 존재로 위축되어 버린 상태, 거기에 더해 자본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은 상황임은 재수에게 여러 모로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동향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미 남한에 온 이상 이들의 관계 자체는 과거 평안도 고향에서의 그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것임이, 특히 자본에 대한 접근 및 성취와 관련하여 판이하게 달라져 있음이 시인 영호에 의해 인식된다.

32) 서세림, 『월남작가 소설 연구-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04면.

33) 선우휘, 『아아, 내 고장』, 『신사조』, 1964.1. 347면.

자가용이 갑수의 차까지 네대 하나는 모 회사의 사장, 또 하나는 중앙청 모국의 국장, 다른 하나는 육군대령의 것.

그러나 걸어 온 사람들의 거개는 들이닥친 자가용차를 보고 자량을 느꼈으면 느꼈지 다른 어설플 감정을 갖지는 않았다. 한 고장 사람이 그저 반갑기만 해서 아직은…….³⁴⁾

그들이 각자 어떤 차를 타고 와서 어떤 차를 타고 돌아가는가는 직접적으로 이들이 남한 사회의 자본에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접근하고 성취해내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만남의 초기에는 이러한 차이가 ‘아직은’ 다른 ‘어설플’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시인은 말하지만, 결국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재수에 의해 증명된다.

모두 입을 모아 재수를 타일렀다. —아무리 취했던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모두 그런 어이없고 기가 막혀 죽겠다는 표정들이었다. 그러나 역시 놀라긴 했지만 시인만은 재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듯 싶었다. 잔뜩 취해 이런 일 저런 일이 모두 서럽기만 한데, 느닷없이 시계를 잃었다는 놈이 나타나 어정거려 모두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았지만 자기 팔목만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모두가 그런 초라한 자기를 눈여겨 보았으니—아무렴 재수가 광란을 일으킬 범도 한 일이었다. 충분히 충분히 시인에게는 납득이 갔다.³⁵⁾

친선회 행사를 마칠 무렵, 한 청년이 팔목시계를 잃어버렸다며 찾아 헤매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시계를 찾는 청년에게 재수가 느닷없이 뺨을 때리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다. 참석한 고향 사람들이 모두 놀라 재수를 말리지만, 시인만은 그러한 재수의 심정을 위와 같이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팔목에 시계를 차고 있지 않은

34) 위의 글, 348면.

35) 위의 글, 369면.

사람은 재수뿐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부지불식간에 팔목시계는 재수의 현재적 가난의 표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재수가 이를 견디기 어려워 폭행으로 이어졌음을, 그 사정을 납득할 수 있기에 피해자인 청년을 그냥 다독거리며 돌려보냈음을 시인은 이야기한다. 이러한 소동이 다 끝나고 군민친선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이러한 시각은 계속된다. ‘빠스’를 타거나 ‘전차’를 타는 사람들, 혹은 주머니를 털어 ‘택시’를 타는 사람, 잠시 동안 우월감을 느끼며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 등 낯날이 동향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시인의 눈에 그들은 “저마다 고달픈 삶”으로 묘사된다.

남한 사회에서의 삶의 결과물은 결국 자본에 얼마나 잘 접근하여 얼마만큼 성취해내었는가를 토대로 평가되고 있음을, 그것이 동향 사람이라는 친밀하고 애뜻한 감정적 관계에서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임을 이 작품들은 보여준다. 나아가, 오히려 동향인이라는 점은 그러한 자본의 위계 관계를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그려낸다. 이제 ‘지역’이라는 강력한 연대의 기반에 자본은 투입의 지점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과 경험이 강한 자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평안도가 아니라 서울일 수밖에 없을 때, 그러한 강력한 기반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뜻밖에도 가장 강하게 지역주의를 현현한 선우휘의 작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그러한 차이와 위계의 지점들이 만족이나 행복의 정서와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거의 명분이 사라져간 지점을 자본과 속물성이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면서, 그러한 현실의 세계는 상당히 불구적인 자본의 도시성을 동반하고 온 것임을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연대를 생각할 때 중요한 지점은 타자에 대한 배제나 불평등의 재생산을 경계해야 한

다는 점이다.³⁶⁾ 그것은 연대 의식의 가장 부정적인 근원으로 기능하게 되며 개인들의 삶을 더욱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고향의 사람들, 지역주의의 연대 속의 이들은 각자 왜소화된 주체, 혹은 무력화된 개인 주체로서 단지 기형화된 개성만을³⁷⁾ 드러낼 뿐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연대 인식은 그들에게 오히려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현실은 이제 이들의 삶에서 고향이라는 존재 및 연대 의식의 어떠한 지점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러나 이제 그 내 고향은…….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내 고향은” 아닐 것이 아닌가. 아아, 내 고향은 이제 어디로!”³⁸⁾ 라는 한탄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 ‘아아, 내 고향’은 결국 그리움과 멀어짐을 동시에 표출한 탄식의 목소리로 맺어진다.

4. 재현 불가능한 과거와 비극적 연대 인식

현대사회가 연대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³⁹⁾ 그렇다면 그것이, 즉 연대의 위기라는 사실이 왜 문제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연대의 위기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곧 연대의 위기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방식인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⁴⁰⁾ 따라서 연대를 생각하는 것은 사

36) 이승훈, 앞의 글, 221면.

37) 테오도르 아도르노, 김유동 역, 『미니마 모랄리아』, 도서출판 길, 2014, 58-70면.

38) 선우휘, 앞의 글, 373면.

39) 라이너 출, 앞의 책, 15쪽.

40) 박영균, 『통일의 변증법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 『통일인문학』 61,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40-41면.

회의 기본적 유지 이상의 무언가를 꿈꾸는 것이며, 지금까지 살펴본
 왔듯이 선우회의 작품에서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이때 그러한 연대에 대한 인식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간 방향과 그것
 이 남한 사회에서의 삶에서 의미하는 지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65년 8월 『사상계』에 발표된 『望郷』은 역시 같은 지역 출신의,
 즉 이북의 동향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작품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 작품은 매우 극단적으로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남한을 대비시키며 상당히 독특한 정서를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흥
 미롭다. 이제 사실상 고향에 다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점은,
 누구보다 간절히 고향을 그리워했던 이들 월남민들에게도 현실적으
 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한 현실이 지속될수록 이들은 더
 욱 강렬한 노스텔지어를 드러내곤 하는데, 이때 노스텔지어가 낭만
 이 아닌 괴기에 가까운 비극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望郷』
 이다.

이 작품은 19년 전 월남한 '나'의 서술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오랜
 기간 동안 월남민으로 살아온 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남 사회에 자
 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어쩔지 '집'을 사는 일만은 망설이게 된다. 고향 이북이 아닌 이곳
 이남에 집을 마련해 놓으면, 영영 자신의 소중한 곳을 버리는 것 같
 은 야릇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언젠
 가는 돌아갈 곳으로 상정된 고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나조차
 도 결국 19년 만에 남한에 새로운 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
 와 현실의 간극 사이에서 부유하던 삶의 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친구인 이장환의 경우는 다르다. 역시 월남민 가족인
 이장환의 경우, 그의 부친이 남한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성공
 을 이룬 뒤 색다른 시도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저만치에 자리한 디근자 집을 건너보았을 때 나는
“아”

하고 짧게 목을 울리고 그 자리에 서버리고 말았다.

그것은 분명히 그 옛날 이북에서 자주 보아온 바로 이장환
의 집임에 틀림없었다.

집 모양이 같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은지 한 달이 넘지 않은
신축이면서 그것은 몹시도 낡아 보이는 것이 너절하게조차 느
껴지는 것조차 비슷하지 않는가.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디근자 집의 서쪽 한 끝에 달아
붙어 있는 시골식 뒷간의 짙으로 둘러싼 울타리 밑의 한 귀퉁
이에 나있을 개구역을…….

그것마저…….

집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나의 감회는 전신을 스치는 파상
적인 소름으로 나타났다.⁴¹⁾

북한에서 100년이나 된 고택을 두고 쫓기듯 빈손으로 떠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장환의 부친은, 남한 사회에서도 오직 그 집과 고향
의 기억에만 매달린 끝에 북한에서의 고향집을 남한 시골마을에 그
대로 재현해낸 것이다. 동네의 풍경마저 비슷한 시골마을을 택해 낡
은 옛집을 그대로 복제해놓은 후, 그 집을 늘 드나들던 친구 ‘나’를
반드시 초대해서 그 관계의 유대까지 재현하기를 그는 소망한다. 지
리적 재현과 감정적 관계의 회복까지 동시에 꿈꾼 것이다. 이러한
낭만적 시도는 말 그대로 ‘꿈’과 같은 것이다. 처음 그 집을 보았을
때는 고향집과의 유사성에 깜짝 놀라게 되지만, 뒤이어 오히려 그
유사성 이면의 결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면
서 오히려 균열은 심화되고 마는 것이다. “난 이상하게두 이북의 집
허구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아니 비슷하게 본땀다고 보이면 보일수
록 되려 생소한 느낌이 드니 웬 일인지 모르겠어.”⁴²⁾라고 곤혹스럽

41) 선우휘, 『望郷』, 『사상계』, 1965.8. 393면.

42) 위의 글, 394면.

게 말하는 이장환의 표정은 그러한 상태를 대변한다.

이장환의 부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흉내를 낸 것에 만족하는 듯싶다가도, 뗏돌 하나, 천장에서 뛰어다니는 쥐 한 마리의 부재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것까지 재현해낼 수 있다면 더욱 완벽해질 것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결국 돈을 주고 굳이 쥐들을 사와서 천장에 풀어놓아도, 뗏돌을 바로잡아 보아도,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장환의 부친은 자살을 연상시키는 죽음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 『망향』의 문체적 성격은 바로 그 이장환 부친의 충족될 수 없는 고향 회복이 작중의 '나', 즉 '나'로 표상되는 텍스트 바깥의 작가 선우휘 자신의 것과 연관된다는 점에 있다.⁴³⁾ 극단적인 방식으로 고향을 되돌리고자 했던 시도, 즉 고향에의 회귀에 대한 괴기적 실행은 상당한 수준의 좌절 및 절망의 이름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 작품은 그러한 좌절을 슬프고도 희극적인 모순적 감정의 아이러니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코미디적 상황은 결국 가족과 지역으로 대표되었던 연대 의식들의 균열이 향한 또 하나의 극단적 방향이었다.

이를 통해 결국 감정과 지역적 연대 의식은 남한의 현실적 문제들과 접합하며 지속적으로 파열음을 빚어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그 간극의 고통은 과거 지향의 연대라는 것이 중국에는 계속해서 그 균열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 그러한 감정적 요인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한다. 남한 사회에서 지속된 불완전한 연대의 모순적 속성은 그 자체로 기대와 좌절을 동시에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옛집의 지리와 정서적 관계를 그대로 재현하고

43)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7권 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176-177면.

자 했던 이장환 부친의 시도는 무력화된 개인 주체들의 저항과 같은 것이었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적 벽을 자신의 힘으로, 유사 회귀라는 방식을 택해 넘어보려 한 것이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좌절과 실패의 서사는 결국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분열하는 선우휘 작품 속 다른 인물들의 연대 의식과도 상통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작가가 의식했던 그렇지 않든 간에 남한 사회의 일원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생각해볼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연대는 구성원들의 공통성이나 특수한 이해관계만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성에 집착할수록, 다양한 가치의 공존과 평등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타자에 대한 배제와 불평등의 재생산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 결과와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때문에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연대 인식은 끊임없이 구성되고 변형되는 열린 형태의 연대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된다.⁴⁴⁾ 선우휘의 여러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왜곡된 결과물로서의 연대 인식들이 드러내는 방향도 이와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가 가족이나 지역의 이름으로 계속하여 공통성과 특수성을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비극적 연대 인식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품고 있는 연대에 대한 기대를 남한 사회의 현실과 끊임없이 비교해보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 선우휘의 소설을 읽는 또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다.

감정과 지역주의에 기반한 연대 의식이 남한 사회의 현실적 문제들과 충돌하며 갈등을 빚어낼 때, 그 간극의 고통은 결국 과거 지향의 연대를 의식할수록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연대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동일성에서 타자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과도 연관

44) 이승훈, 앞의 글, 221-222면.

해 생각해 볼 때, 작가 선우회의 작품에 나타난 연대의 인식도 이러한 지점을 말해준다 하겠다. 동일성이나 특수성에 대한 집착은 결국 좌절적 서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남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열린 연대의 필요라는 것과는 관련된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에서 그러한 비극적 세계 인식의 기원의 하나로서 연대 인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5. 결론

본고에서는 작가 선우회의 작품에 나타난 '연대'(solidarity)의 성격과 작가의식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는 반공주의와 선우회의 소설에 대한 강력한 등가성을 넘어 그의 정신사적 지향점을 다양하게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우회의 작품들은 한국전쟁 이후 분단사회의 특수성과 월남작가로서의 고통을 함께 드러내면서, 그것과 관련한 독특한 연대 인식들을 표출한다.

그것은 강렬한 가족주의를 통한 감정적 연대의 추구하고 이데올로기적 관련성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선우회가 일평생 강조했던 지역주의, 즉 서북 지역 출신 평안도 사람으로서의 자각과 관련한 연대의식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는 선우회의 작품에 나타난 연대의 성격과 작가의식의 연관성을 밝히고, 이를 통해 다른 전후 작가들과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작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공주의 및 휴머니즘을 둘러싸고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온 선우회에 대해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선 분석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가족애와 반공주의의 관계에 대해 작가 선우회는 그만의 방식으로 고민을 드러낸다. 이에 대해 선우회의 작품에서 가족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연결되는 지점과 그 감정적 연대의 불가능성에 대해 인식해 볼 수 있다. 또한 반공주의 못지않게 지역주의의 영향력은 작가 선우휘에게 강력한 것이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남한 사회에서의 삶의 결과가 드러낸 간극을 작가가 인식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자본을 매개로 하여 지역주의 연대의 균열 지점을 서글프게 쫓아가는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결국 감정과 지역적 연대 의식은 남한의 현실적 문제들과 접합하며 지속적으로 과열음을 빚어낸다. 또한 그 간극의 고통을 통해 과거 지향의 연대는 계속해서 그 틈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선우휘 소설의 인물들은 그럴수록 오히려 그 감정적 요인에 더 매달리기도 하지만, 그러한 비극적 순환의 구조가 지속될 수는 없다. 연대는 궁극적으로 동일성에서 타자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동일성이나 특수성에 대한 집착은 결국 좌절적 서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남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열린 연대의 필요라는 것과는 관련된다. 따라서 그의 작품들에서 그러한 비극적 세계 인식의 기원으로서의 연대 인식을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선우휘, 『선우휘 문학선집』 1~5, 조선일보사, 1987.

『사상계』, 『지성』, 『신태양』, 『신사조』

2. 논문

강진호, 「한국 반공주의의 소설·사회학적 기능」, 『한국언어문학』 52, 한국언어문학회, 2004, 1-31면.

김건우, 「월남 학병세대의 해방 후 8년-학병세대 연구를 위한 시론」,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학회, 2015, 301-322면.

김종욱, 「선우휘 초기소설에 대한 일고찰」,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313-326면.

김진기, 「1950년대 소설에 나타난 파시즘 연구-선우휘 소설에 나타난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283-312면.

김진기, 「반공에 전유된 자유, 혹은 자유주의」, 『상허학보』 15, 상허학회, 2005, 157-193면.

박영균, 「통일의 변증법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 『통일인문학』 61,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33-61면.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평화』 7권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158-212면.

서세립, 「월남작가 소설 연구-‘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서유석, 「‘연대’ 개념의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의미」, 『시대와 철학』 제21권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453-483면.

염무웅, 「선우휘론」, 『창작과비평』, 1967.겨울. 645-657면.

이승훈, 「현대 사회에서 연대적 주체의 모색」, 『사회사상과 문화』 18권 2호,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199-235면.

이정석, 「선우휘의 세계관과 윤리」, 『현대문학이론연구』 4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215-235면.

- 정주아, 「두 개의 국경과 이동의 딜레마-선우휘를 통해 본 월남작가의 반공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247-281면.
- 최성환, 「철학적 문제로서의 연대」, 『철학탐구』 27,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0, 139-164면.
- 한수영, 「한국의 보수주의자 선우휘」, 『역사비평』, 2001.겨울. 252-273면.

3. 단행본

-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001.
-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책방, 2017.
- 이득재,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2001.
- 다이에너 기틴스, 안호용·김홍주·배선희 역, 『가족은 없다-가족이테올로기의 해부』, 일신사, 1998.
- 라이너 출, 최성환 역, 『오늘날 연대란 무엇인가』, 한울, 2008.
- 에밀 뒤르케임, 민문홍 역,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5.
- 테오도르 아도르노, 김유동 역, 『미니마 모랄리아』, 도서출판 길, 2014.

<Abstract>

Characteristics of Solidarity in Seonu Hwi's Novels

Seo, Se-Rim

Novels written by a writer Seonu Hwi have been mostly analyzed as ‘anti-communism’ or ‘action humanism.’ This perception has been broadly accepted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since the 1950s, and few attempts have been made to deviate from this viewpoint. Seonu Hwi received Dongin Literary Award for his novel 『Bulggot(Flame)』 published in 1957, and instantly became a popular writer and a key figure in literature in the post-war era. A more diversified analysis of his novels would help to overcome simplistic understanding of the post-war literature.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foundations of Seonu Hwi's ethics that oscillated between individualism and communalism as shown in earlier discussions over his work. In particular, the focus was put on ‘solidarity.’ His writings revealed peculiarity of a divided country and his personal pain as a defector from North Korea, and as such, they express a unique sense of solidarity. This article examines how people's self-awareness as a defector from North Korea formed unique sense of solidarity in South Korea, and analyzes specific types of such solidarity.

First, the pursuit of emotional solidarity through strong familism

and its relationship with ideology is examined. Seonu Hwi expressed concerns over a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ffection and anti-communism in his own way. Additionally, it is examined how the writer's lifelong emphasis on regionalism, self-awareness as someone from Northwestern part of the peninsula, and consequent sense of solidarity affected his writing. For the writer, regionalism had as much influence as anti-communism on his work. Here what is important is how the writer perceived the operating mechanism of regionalism and the chasm in the actual outcomes of living in South Korea. It is described as a sad pursuit of spots where regionalism-based solidarity cracks through the medium of capital.

This article elucidates nature of solidarity shown in Seonu Hwi's writings and its relationship to the writer's ethics, and based on this, attempts to show differences with other post-war writers. The objective is to explore a possibility of an analysis over Seonu Hwi's writing, beyond the prevalent dichotomous thinking, for whom both positive and negative criticisms have been extreme compared to other writers, over the writer's anti-communism and humanism.

Key words: Seonu Hwi, Solidarity, Anti-communism, Familism, Regionalism, Emotional Solidarity, Capital, Crack

투 고 일 : 2017년 8월 5일 심 사 일 : 2017년 8월 7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